

#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WS 우승

렌던 추격포·켄드릭 역전 투런포로 휴스턴 6-2 제압  
월드시리즈 2승 거둔 투수 스트라스버그 MVP 선정

워싱턴 내셔널스가 창단 50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에서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워싱턴은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틴메이드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WS 7차전에서 0-2로 끌려가던 7회 앤서니 렌던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따라 붙고 하위 켄드릭의 우월 투런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어 8회 후안 소토의 적시타와 9회 애덤 이튼의 2타점 안타를 묶어 6-2로 승리, 감격스러운 WS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연고로 한 메이저리그 팀이 WS에서 우승한 건 1924년 워싱턴 세네티스 이래 95년 만이다.

워싱턴은 또 WS 원정 경기에서만 4승을 거둔 유일한 챔피언이라는 새 역사도 썼다. 워싱턴은 안방에서 열린 3~5차전을 모조리 패했지만, 휴스턴에서 열린 1~2, 6~7차전을 잡았다.

MLB닷컴은 경기 전 메이저리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미국프로농구(NBA)를 통틀어 7전 4승제까지 양 팀이 원정에서만 3승씩 챙긴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워싱턴이 7차전에서 이기면 최초의 원정 4승 사례가 될 것으로 예고했다.

월드시리즈 2차전과 6차전에서 휴스턴의 에이스 저스틴 벌랜더와 선발로 붙어 2승을 따낸 우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MVP)에 선정됐다.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들이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라스버그는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몰린 전날 6차전에서 승리를 수확하는 등 올해 WS에서 평균자책점 2.51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포스트시즌에서만 5승 무패, 평균자책점 1.98의 뛰어난 성적을 남겨 워싱턴의 우승에 크게 이바지했다.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엄홍길 대장' 대한체육회가 '2019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6좌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59세) 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는 엄 대장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점, 그의 인생 철학이 체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성장 동력으로 이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U-17 월드컵 2차전 '난적' 프랑스에 1-3 패

최종 칠레전서 '16강 저울질'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의 리틀 태극전사들이 '난적' 프랑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첫 패배를 떠안았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

팀은 31일(한국시간) 브라질 고이아니아의 세히나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1-3으로 무너졌다.

아이티와 1차전에서 2-1로 승리한 한국은 프랑스전 패배로 1승 1패(승점 3·골득실-1)를 기록, 이날 아이티를 4-2로 꺾은 칠레(1승 1패·승점 3·

골득실0)와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2연승 한 프랑스(승점 6·골득실+4)는 아이티와 최종전을 앞두고 16강 진출권을 품에 안았다.

이에 따라 태극전사들은 한국시간으로 11월 3일 오전 5시 브라질 비토리아의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칠레와 조별리그 C조 최종전을 통해 16강 직행권(1, 2위) 확보에 나선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제주 동호인축구 축제 44팀 겨룬다

제2회 도축구협회장기 대회 2-3일, 9-10일 총 4일간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회장 김정오)가 주최하는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기 전도축구대회가 11월 2-3일, 9-10일 4일간 펼쳐진다.

제주시 외도1·2구장, 삼양구장, 이호구장 등 4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44팀 1000여명이 참가한다.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9일 예선과 8강, 10일 결승전이 진행된다.

동호인 축구선수 육성과 지역의 축구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대회로 20-30대가 출전하는 혼성부, 장년부(40대), 노장부(50대), 실

버부(60대), 황금부(70대), 여성부까지 연령대를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부문별 우승 팀에게는 상금 50만원, 준우승 팀에게는 상금 30만원이 걸려 있다. 특히 도축구협회장기는 제주시, 서귀포시 축구협회장기에서 우승한 팀이 지역 대표로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김정오 회장은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동호인 축구대회를 더욱 키워가겠다"며 "대회 참여의 동기 부여, 자신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스포츠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렛츠런파크 11월 80개 경주 30일 한라일보배 대상경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는 11월 한 달 동안 주 10일간 80개의 제주시행 경주를 펼친다. 49개 경주는 서울과 부산경남 경마장 등으로 위성 중계되는데 이는 연초 계획 대비 9회 증가한 횟수다.

11월 경마 계획에 따르면 금요일경마는 제주시행 경주와 부산경남 중계경주로 운영되고 토요일경마는 제주시

행 경주와 서울 중계가 발매된다.

16일에는 제주마 2세마 새내기들의 신인왕 선발전 격인 '제주마 브리더스컵' 대상경주(경주상금 9000만원), 30일에는 2019년 한라마 대상 마지막 대상경주인 26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경주상금 9000만원)가 시행된다.

금요일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1시 30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6시다. 토요일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오후 6시다. 문의 064)786-8212. 전선희기자

## 제4회 전도유소년승마대회 11월 2-3일 서귀포산과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시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전도 유소년승마대회가 11월 2일과 3일 서귀포산업

과학고등학교 교육마장에서 개최된다.

승마 유망주 발굴을 위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 60명, 중학생부 50명이 참가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승마문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등 유소년 승마 축제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064)710-0416. 전선희기자



갈라쇼 펼치는 손연재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가 3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9 리프 밸런스'에서 갈라쇼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http://www.jejuSolar.co.kr)